

서울·보성서 나눔 마라톤대회 열린다

# 어려운 이웃 생각하며 달리자

‘마음껏 달리면서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겠는가.’

4월 11일과 9월 12일 전남 보성과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과 자비’의 행사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와 자비신행회는 4월 11일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대원사까지 달리는 ‘제1회 나눔과 사랑의 벚꽃길 달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녀도 동참해 책사인회와 기념품을 전달한다.

도착지 대원사에서는 ‘티베트 박물관 특별전’과 ‘나눔의 축제한마당’도 펼쳐진다. 박물관에서는 티베트 왕궁 화가들의 만다라 특별전이 열리며, 축제한마당에서는 각종 먹거리가 펼쳐진다. 물론 먹거리 수익금도 전액 자비신행회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이번 대회를 마련한 현장 스텝은 “이웃과 나눔의 자리가 될 벚꽃길 달리기는 사활참배, 꽃놀이, 건강을 가족과 함께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

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전달할 후원물품과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 접수는 4월 5일까지 받는다. 062-234-6602

서울광역시도회(회장 김진관)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제1회 달마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눔’을 주제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에는 스텝들과 일반인들도 대거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 보성, ‘벚꽃길 달리기 대회’

4월 11일, 동참금 전액 불우이웃에

이 대회는 보성 서재필 기념공원에서 출발해 대원사까지 20리길(8.5km)을 달리게 된다. 대회명칭이 ‘나눔과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은 생명나눔에서 후원하고 있는 백혈병어린이와 독거노인을 후원하기 때문이다. 참가자들이 내는 동참금 1만원은 전액 후원금으로 기증된다. 대회 진행비는 자비신행회 공식후원업체인 보성건설(회장 이기승)이 맡았기에 가능하다.

대회 주최 측은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 셔츠를 선물하고 단주, 달리아 대회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대회 당일 원성 스텝과 이해인 수



## 서울, ‘달마 마라톤’ 개최

9월 12일, 100원 적립 행사 등 준비

마라톤 마니아를 위한 하프코스과 생활인을 건강을 위한 10km, 여성들을 위한 5km, 가족단위 참가자를 위한 4.8km, 1.8km 코스가 마련되며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

정우식 사무처장은 “봄에는 연등축제가 열리지만 가을에는 불자들이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의 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하게 됐다”며 “참가자들이 100m에 100원씩 적립하는 등의 행사를 통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엽·권영진 기자



## 법당 닦고 번뇌 쓸어냅니다

서울 자은사 하영선 보살



“항상 쓰고 닦아라” 하영선 보살은 청소를 통해 마음속 번뇌 망상까지 없애고 있다.

서울 돈암동에 위치한 자은사에는 살아있는 주리반타카가 있다. 주리반타카는 우둔했지만 “항상 주위를 쓰고 닦으며 청소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 청소를 통해 마음속의 번뇌 망상을 없애 깨달음을 증득한 인물.

신도회인 만다라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며 10년 넘게 법당과 요사채를 청소하고 닦으며 하심을 실천하는 하영선(57) 보살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금은 의정부로 이사해 매일 사

말마다 집에 함께 와 법당 청소를 하고 108배를 하며 공부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몸소 체득하게 됐다.

그래서일까? 두 명의 아들이 모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첫째 아들은 취업이 어렵다는 IMF 시절에 증권사에 당당히 취업을 했다. 둘째 아들도 지난달 은행에 취업해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 사찰 구석구석 쓰고 닦고 하심 실천

### 청소 통해 바른 마음의 중요함 체득

하영선 보살이 자은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 시어머니가 돌아 가셨을 때 유품을 정리하다 장롱 밑에서 나온 약간의 돈을 평소 다니시던 자은사에 보시하러 집을 찾았다가 주지 동회 스님이 49재를 지내주어 처음 사찰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하 보살은 주지스님이 무형문화재 제 50호 법제 이수자로 무대에서는 화려하지만 사찰에서는 신도들이 남긴 밥 한 톨까지 몰래 드실 정도로 근검절약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부엌일, 청소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스님을 돕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김두서 기자

## 원주, 복원문화권 조성사업 나서

거문사지터·미륵산 등 유적 정비 3월 세미나 개최, 타당성 조망

거문사지터를 비롯해 석남사와 견훤산성, 미륵산 등의 불교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는 강원도 원주의 복원문화권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의 불교 유적지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020년까지 복원문화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는 2월 3일 원주문화원 공연장에서 ‘복원문화권의 정체성과 원주지역 불교문화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불교문화유적 복원의 타당성을 조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강원발전연구원 김주원 연구위원은 “복원문화권 정립을 위한 핵심개발사업으로 불교문화유적지 정비사업 및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박형진 원주문화원장은 “거문사지에 터가 남아있는 설법장은 고려시대에 불교가 인재양성에 주력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원주가 불교 중흥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복원문화권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주를 중심으로 남한강 삼강 일대에 형성됐던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당시 이 지역의 불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불교문화의 주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복원문화권은 그동안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에 포함돼 있어 독자적인 문화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원주시는 올해 초부터 복원문화권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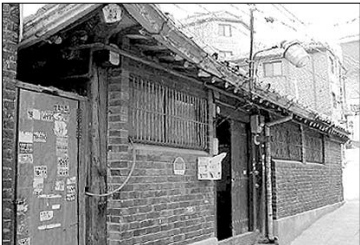
### 만해 스님 옛집, 지정문화재 지정 민가 형식 연구의 중요 자료 인정

만해 스님의 종로구 계동 옛집(사진)이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월 2일 만해 스님을 비롯한 역사인물 유적 6곳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만해 스님의 옛집은 스님이 1933년 성북구 심우장(溇牛莊, 서울기념물 제7호)

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다.

1월 28일 열린 시 문화재위원회는 “건축물 자체에 문화재적 가치는 없더라도 문화사적으로 우리 문화예술사에 끼친 영향이 크다”며 “건축물 내외부에 스님이 살던 당시의 가옥 모습이 보존돼 있고, 당시 일반 민가 형식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만해 스님의 옛집 외에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종로구 가회동 현상윤(독립운동가) △종로구 누하동 이상범(동양화가) △종로구 원서동 박인환(시인) △성북구 성북2동 최순우(미술평론가) △성북구 동소문동 박진규(조각가)의 옛집 등 6곳이다. **오유진 기자**

### 법주사, 주지 선출 28일 총회

법주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동법)는 2월 28일 오후 1시 법주사 공현당에

서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선중총회를 개최한다.

입후보자 등록은 2월19일부터 21일까지이며, 22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남동우 기자**

### 불교사상 선양한 성왕 영정 제작 전신좌상 형태로 권오창씨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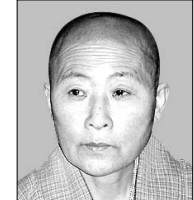
불교사상을 전파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백제 성왕의 영정이 제작됐다.

충남 부여군은 백제 왕조의 자궁심과 역사 교육을 위해 최근 107cm×183cm 크기에 전신좌상(全身坐像) 형태의 백제 성왕 영정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영정은 문화관광부 동상영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서울 전통인물화연구소장인 권오창 화백이 그렸다.

부여군은 성왕 영정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성왕 동상을 건립하는 등 백제 고도의 전통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제 성왕은 백제 중흥의 뜻을 품고 수도를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천도하고 각종 불교문화를 발전시키는 등 불교사상과 문화를 선양했다. **한명우 기자**



### 추천의 말

동회스님 자은사 주지

### 스스로 할일 찾아 솔선수범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스스로 자기 할일을 찾아서 합니다. 한 분의 솔선수범이 많은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셈이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도 하 보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 옥천범음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 년	강 의 내 용	교 수 진	모 집 인 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준보유자 김 구해	50명
2학년	각배과	이 수 자 조 현성	50명
3학년	영산과	이 수 자 조 인각	50명
이 론	불교의식각론	교 수 심 만춘	-

2004년 2월 10일 ~3월 5일까지

☎2020 - ☎15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1 392-3234

종 무 소 021 392-3007~8

팩 스 021 393-9450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2004년 3월 6일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봉원사 설법전)

승려·교역자, 특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반명함)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옥천범음대학 학장 김 구해